

화순군, 민생회복·지역 활력 제고 '속도'

민선 8기 3주년



‘문화관광·바이오·부자 농업’ 3대 먹거리
만원 임대주택 인구정책 우수사례 ‘주목’
광주·화순 광역철도·폐광지역 新성장

화순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청년·바이오·관광·농업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 민생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남은 1년간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 만들기를 위한 68

개 공약 사항을 비롯해 군정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서민 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북구(사진) 화순군수는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화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전남·광주 협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구축 ▲화순 고인돌유적지 국가정원 조

성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핵심 4대 사업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화순군은 문화관광·바이오·부자 농업을 3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집중해 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인구정책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의 출생아 수는 2022년 178명에서 2024년 255명으로 43% 증가했다.

이 밖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

대, 남산 빛공원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인돌 축제, 2025 봄꽃 축제 준비 등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한 콘텐츠도 확대되고 있다.

파크골프장 개장과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범은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남 2위를 기록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난 산업’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공모에 선정돼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직영 체제로 전환된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은 올해 연매출 36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22배 성장을 이뤘다.

바이오·백신 산업 분야에서는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이어 호남권 유일 국가첨

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1만 개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 294억 원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민생과 복지 예산은 확대됐다. 농업 예산은 1천 784억 원에서 1천 205억 원으로, 복지 예산은 1천 444억 원에서 1천 694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1위(2023년)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2023·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등급) 등 각종 기관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의 밤 더 빛난다”…동천 야간경관 조성

순천교 등 4개 교량 연내 마무리

순천시가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올해 연말까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스페이스브릿지, 신산교, 출렁다리, 철교, 조곡교 등 5개 교량과 벚꽃길, 강남정, 원형계단, 교각 하부 등에 야간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는 팔마대교의 경관조명이 4월에 완공됐으며, 풍덕동 장미터널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순천교,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 등 4개 교량의 야간경관도 연내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구간이 모두 완공되면 스페이스브릿지부터 원용당교까지 동천을 따라 감성적인 야경이 이어지며 순천의 야간 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LED 조명과 수면 반사조명을 활용한 이번 경관은 과도한 연출 대신 감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도심 속 휴식처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야간 체류 콘텐츠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동천변의 생태공간인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도시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오는 8월 지역 상권과 협업해 ‘동천 야광 축제’를 개최하고, 야간경관과 어우러진 문화 콘텐츠로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감성적 야경을 통해 순천의 밤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여수시의회는 지난 24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여수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보육 정책 마련’ 앞장

어린이집 운영 경청회서 개선방안 논의
인력·예산·환경 개선 등 과제 도출

여수시의회가 보육 정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여수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개최했다.

이석주 의원과 환경복지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경청회에는 전남도의원, 시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국정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용 전남도의회 보건환경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과 보육 교직원의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유토론에서는 ▲소규모·도서지역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 ▲0·2세 보육료 인상 등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경청회는 5개 분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첫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만큼 향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내년 전남 양대체전 상징물 선정

대회마크·마스코트 등 심의

구례군이 오는 2026년 개최하는 전남(장애인)체전을 빛낼 대회상징물을 선정했다. <사진>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1·20일 2회에 걸쳐 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65회 전남체전과 제34회장애인체전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8개 부문에 대해 당선작과 각작을 각 1건씩을 확정했다.

구례군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적 합성·상징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대회마크와 마스코트, 포스터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심의·선정했다.

아울러 전남체전 구호를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 표어를 ‘자연이 숨쉬는 구례, 희망이 꽂히는 전남’으로, 장애인체전 구호를 ‘자연의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으로, 표어는 ‘구례에서 맞잡은 손, 하나되는 감동 체전’으로 정했다.

구례군은 선정된 상징물에 대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보완한 후 전남도체육회 및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 이후에 양대체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길용 구례군수는 “선정된 대회 상징물은 양대체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구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상징물 활용 등 홍보를 통해 내년도 체전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녹색조끼를 찾으세요”

광양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광양시는 26일 “‘녹색조끼를 찾으세요’” 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녹색 조끼를 착용한 민원안내도우미는 창구 위치 안내부터 서식 작성, 번호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까지 1대 1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특히 이번 사업은 광양시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어르신

에게는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민에게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실을 찾은 한 시민은 “처음 방문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에게는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민에게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실을 찾은 한 시민은 “처음 방문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